

“50 중반에 검객 변신 꿈 이뤄 행복”

“데뷔 35년... 해외 팬 만나러 갑니다”



영화 '살수' 신현준

환갑 즈음 무사 역할 오래된 꿈 고강도 액션·훈련, 체력적 한계 촬영 초반엔 종아리 근육 파열도 26년만의 베드신 아내가 질투해

“지금까지 영화를 촬영하면서 가장 힘들었어요. 그래도 꼭 해내고 싶었어요.”

영화 '살수'는 배우 신현준에게 느낌이 찾아온 큰 도전이었다. 올해로 55세인 그에게 매 순간 격하고, 상대 배역과 연기를 맞춰야 하는 합이 많은 '칼잡이' 액션은 쉽지 않은 과제였다.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삼정동 한 카페에서 만난 신현준은 '살수' 촬영과정을 이렇게 돌아보며 “처음부터 끝까지 액션이 많았고, 액션을 하더라도 70, 80명과 싸워야 했으니 촬영 들어가기 전 훈련 때부터 너무 힘들었다”고 떠올렸다.

그는 주인공 '이난' 역을 맡았다. 한때 조선 최고의 살수였지만 병마를 만나면서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정체를 숨기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인 검객이다.

“촬영 초반 종아리 근육이 파열되면서 항상 붕대를 감고, 파스 뿌리고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영화였습니다. 힘든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게 배우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까지 힘들 줄이야... 그래도 해내야 했기에 선택을 했어요.”

고된 촬영과정에도 '살수'는 그에게 나름대로 의미 있는 작품이 됐다.

1990년 대학 재학시절 임권택 감독의 '장군의 아들'에서 하야시 역으로 영화계에 데뷔한 그는 환갑 즈음에는 무사(武士)로 나오는 작품으로 현장에 서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다고 한다. '살수'를 통해 오래전 간직해온 꿈을 이룬 셈이다.

“지난 10년간 연예가중계를 진행하면서 많은 해외 배우들의 인터뷰를 매주 보게 됐어요. 그러

면서 목표가 생겼지요. 나도 뭔가 나이를 뛰어넘는 작품을 해보고 싶다고요. 합을 짤 때 보면 너무 멋있다는 생각이 강했던, 사실 저는 이번 작품에 만족합니다. (웃음)”

그는 이 작품에서 오랜만에 '베드신' 연기에도 도전했다. 배우 심혜진과 호흡을 맞췄던 '마리아와 여인숙' (1997) 이후 26년 만이다.

신현준은 아내와 함께 '살수' 시사회에 참석했는데, 영화가 끝나고서 “저 장면에서 베드신이 꼭 필요한 것이냐”는 반응이 아내에게서 나왔다고 했다.

“아직도 (아내를) 달랠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따뜻한 밥을 먹지 못하고 있어요. 결혼 10년 차인데, (아내가) 진짜 화가 많이 난 거 같습니다. (웃음)”

신현준은 이날 간담회에서 과거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천국의 계단' 촬영 당시를 비롯해, 자신이 해외 유명 축구선수인 즐라탄 이브라히모비치와 생김새가 비슷해 생긴 일 등을 재미있는 일화로 풀어내기도 했다.

신현준은 차기작으로 본격 코미디 영화인 '귀신경찰'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어설피게 초능력을 갖게 된 사람들의 좌충우돌 스토리를 그린 작품이다. 오랜 친구인 정준호와 배우 김수미가 함께 했다.

그는 “가족이 함께 보기 좋은 영화”라며 추천했다.

14년간 강의를 해온 교수이기도 한 신현준은 선배 배우로서 후배 배우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의연하게 잘 헤쳐나가길 바란다는 뜻도 밝혔다.

“학교에서 어린 배우, 특히 여배우들이 댓글에 상처받고 극단 선택을 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내가 조심을 해야겠다기보다는 ‘악플은 연예인이 가져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질 것 같습니다. 다시는 그런 선택을 하는 이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연합뉴스



‘봄여름가을겨울’ 5월 LA 공연
김종진 “한국 문화 본질 알리고 싶어”

“흘러가고 잊힌 것들, 버려진 것들의 가치를 인정해야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하는 음악가가 되지 않을까요?” 동장군의 기세가 한풀 꺾였던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 최근 기자와 만난 밴드 봄여름가을겨울의 김종진(사진)은 요즘 빈티지 음악 장비를 거래하는 취미를 불었다며 환하게 웃었다.

그는 지난해 10월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봄여름가을겨울을 ‘지속가능성의 수호자’라고 설명했다. 낡고 녹슨 것의 먼지를 털어내고 그것의 가치를 보존하고픈 그의 소망을 담긴 수식어였다.

김종진은 “영원히 변치 않는 사실은 우리는 언젠가 잊혀버린다는 것”이라며 “잊힌다”라는 사실 때문에 자포자기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나뭇가지는 회초리가 될 수도 있고, 목욕이 될 수 있어요. ‘잊힌다는 운명’도 누군가에게는 잔인한 사실이 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미래를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죠. 저는 후자를 택했어요.”

김종진은 올해 5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공연을 열어 흘러간 것들을 보듬는 레파토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2010년 9월 로스앤젤레스 공연 이후 약 13년 만의 해외 공연이다.

김종진은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지금, 한국 문화의 본질을 알리고 싶었다”며 “K팝의 뿌리를 보여줄 수 있는 공연을 열게 됐다”고 소개했다.

그는 ‘봄여름가을겨울의 음악은 블루스와 재즈라는 영미권 음악을 한국식으로 해석한 노래기 때문에 미국은 호랑이굴 같은 곳’이라며 웃음을 터뜨렸다.

K팝 가수들이 전 세계를 누비는 한국 음악의 최후환기, 김종진은 작품성보다 상업성에만 집중하는 일부 K팝에 대해 아쉬움도 솔직하게 드러냈다.

그는 최근 열린 그래미 어워즈에서 ‘송 오브 더 이어’ 부문을 수상한 미국 싱어송라이터 보니 레이트의 ‘저스트 라이크 댓’ (Just Like That)을

좋은 음악의 지향점이라고 꼽았다. ‘저스트 라이크 댓’은 한 어머니가 아들의 심장을 이식받은 남자를 만나 그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듣는 이야기를 노래한 곡이다.

김종진은 “음악의 뿌리가 튼튼하지 않다면 K팝의 유행은 급속하게 퍼진 만큼이나 빠르게 지나가 버릴 수 있다”며 “음악에 이야기를 담아내는 데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좋지 않을까”고 조언했다.

그는 K팝의 뿌리를 다지기 위해서라도 주류 음악과 비주류 음악의 교류가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류 음악은 결국 비주류 음악에서 발굴되고 잘 다듬어져 세상에 알려진 결과물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봄여름가을겨울과 김종진의 임무는 주류와 비주류 음악을 잇는 다리가 되는 것이예요. 하하’ /연합뉴스

영화 평균 관람비 1만원 시대

지난해 한국 영화산업 결산...관객수, 코로나 이전 절반 수준

국내 영화관의 평균 관람 요금이 지난해 첫 1만 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영화진흥위원회가 낸 '2022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관람 요금은 작년 9천656원에서 6.5% 증가한 1만285원으로 파악됐다.

평균 관람 요금이 1만 원을 넘기는 작년이 처음이다. 이는 팬데믹 이후 영화관들이 영업 손실을 이유로 관람 요금을 1000 원씩, 3차례 인상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작년 박스오피스 상위권은 모두 '속편'이 차지

하는 특이 현상이 나타났다.

1위는 매출액 1312억의 '범죄도시2'였다. 1269만명의 관객을 동원해 코로나 사태 이후 첫 '천만 관객' 영화가 됐다.

2위는 '아바타: 물의 길' (아바타2), 3위는 '탑건: 매버릭', 4위는 '한산: 용의 출현', 5위는 '공조2: 인터내셔널'이었다.

2022년에는 국내 특수상영(4D·IMAX·ScreenX·Dolby Cinema)의 매출이 전년보다 크게 성장했다. 특수상영 전체 매출액은 1천264억 원으로 2021년보다 271.2% 늘었다. 관객 수는

865만명으로 같은 기간 252.2% 증가했다.

2022년 한국의 극장 매출액은 1조1천602억 원으로 전년 대비 98.5% 증가했다. 전체 관객 수도 1억 1281만 명을 기록해 같은 기간 86.4% 늘었다.

매출액과 전체 관객 수 모두 회복세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되지만, 2019년과 비교해 매출액은 60.6%, 관객 수는 49.8% 수준에 불과했다.

2022년 전 세계 극장과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DVD·블루레이 등의 시장규모(매출액 기준)는 각각 31.9%, 61.2%, 7.0%로 OTT 비중이 가장 컸다. 전 세계 영화·영상 산업시장에서 OTT 비중은 2019년 44.0%로 극장 42.9%와 비슷했으나 이듬해 코로나로 극장이 침체에 빠지자 OTT 비중이 70.8%로 치솟았다. 2021년에는 OTT 66.9%, 극장 23.2%, 2022년에는 OTT 61.2%, 극장 31.9%로 OTT의 압도적인 우세가 지속했다. /연합뉴스

15년차 과부의 이중생활 '밤에 피는 꽃'

MBC 드라마 이하늬 주연

MBC는 새 드라마 '밤에 피는 꽃'의 주연으로 배우 이하늬(사진)를 발탁했다고 21일 밝혔다.

'밤에 피는 꽃'은 밤이 되면 담을 넘으며 이중생활을 하는 과부가 모두가 탐내는 한 종사관과 얽히게 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이하늬는 15년차 과부 조연화 역을 맡았다. 낮에는 조신한 열녀인 척하면서 담장 밖 세상을 보지 못한 채 조용히 살아가는 사대부 최고 가문의 며느리지만, 밤에는 담을 훌쩍 넘어 아무도 모르게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보살피는 인물이다.

드라마 '하이엔나', '별에선 온 그대', '뿌리 깊은 나무', '홍천기' 등을 만든 장태유 PD가 연출을 맡았다.

올 하반기 방송 예정. /연합뉴스



1 반경 1km내 아파트 및 오피스텔 7000여 세대 상권유입 가능

2 아시아문화전당 인접, 예술의 거리 및 음식의 거리 방문 고객 확보

3 사옥 5층 문화센터 상시운영 (골프클럽, 요가, 갤러리)가맹고객 확보

4 지하철 2호선 개통시 접근성 양호, 유동인구 폭발 증가

MG골프클럽

구분	이용 기간	정상 이용료	금남새마을금고 이용자 할인 특가 (원)		
			30점 이상 (10%)	40점 이상 (15%)	50점 이상 (20%)
정기 회원	1개월	200,000	180,000	170,000	160,000
	3개월	570,000	513,000	484,500	456,000
	6개월	1,080,000	972,000	918,000	864,000
	12개월	2,040,000	1,836,000	1,734,000	1,632,000

* 이용자 할인 특가 문의 (영업지원팀)
 * 락카비 - 월 10,000원 (6개월 이상 등록자 무료)
 * MG체크카드 이용 시 이용금액의 5% 추가 할인 (최고 2만원 할인)
 * 유명 골프 프로 레슨 중

5층 MG문화센터 회원 대모집

요가, 노래교실, 라인댄스 상시 운영 중

사옥 임대 문의 (영업지원팀)

☎ 062-223-8007